KIWOOM DAILY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유가 변동성 재확대에도, 저가 매수 유인 지속 등으로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7일(화) 미국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불안발 유가 변동성 확대, 3월 FOMC 대기심리에도, 전쟁의 과거 학습효과에 따른 저가 매수 유인, 견조한 AI 수요 전망 속 마이크론(+4.5%) 실적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다우 +0.1%, S&P500 +0.3%, 나스닥 +0.5%).

현재까지도 미-이란 전쟁은 엇갈린 뉴스플로우가 나오면서 시장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부분적으로 개방했으나, 이곳의 우회로인 UAE 푸자이라 항구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 트럼프 또한 군함 파병에 거절한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비난했으며, 아직 이란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점도 전쟁 장기화 우려를 주입시키고 있는 상태.

상황 전개의 예측 불가능성이 수반되는 전쟁의 특성 상, 이번 중동 사태 역시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국면. 하지만 3월 초 전쟁 초기 당시 주가 급락이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 현재는 증시의 하방 지지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시점. 시장은 과거 수십여 차례 전쟁 이벤트를 통해 "전쟁 초기 증시 하락 -> 이후 증시 회복" 경로를 학습해왔으며, 이번에도 그 학습효과가 유할 것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것이 적절.

지금은 미-이란 전쟁 이슈가 시장 관심사의 1순위에 있는 국면이다 보니, 내일 새벽 예정된 3월 FOMC의 중요성은 평년에 비해 다소 크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미 10년물 상승(3월 초 4.0% -> 현재 4.2%대)도 증시 회복 탄력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유가 급등과 맞물린 연준의 인하 기대감 후퇴에서 기인한 만큼, 이번 3월 FOMC는 간과할 수 없는 이벤트.

3월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됐기에, 중동 사태 이후 기존 6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첫 금리인하 예상 시점이 바뀌는지가 증시의 관건. 이는 점도표 변화(작년 12월 FOMC에서는 2026년 연내 1회 인하로 제시),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직관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그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

일단 최근 시장 금리 상승에는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준의 매파 성향 강화 우려가 일정부분 선반영된 감이 있음.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파 수위를 높이지 않는 한(ex: "에너지 인플레이션 상승은 구조적, 상황에 따라 긴축 전환을 검토하겠다" 등과 같은 강도 높은 매파 발언), 3월 FOMC는 증시에서는 최소 중립적인 재료에 그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 등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유가 변동성 확대, 3월 FOMC 경계심리 등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 부담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1.6%, 코스닥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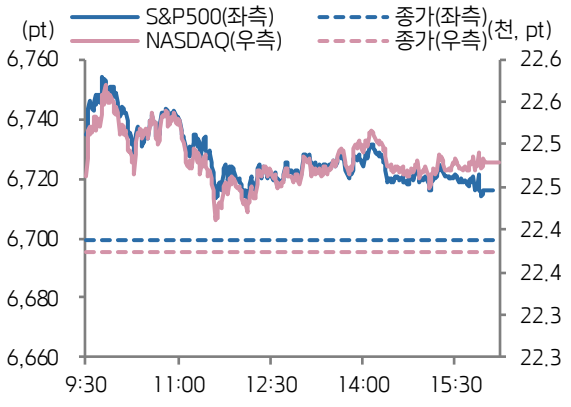
금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3월 FOMC 관망심리에도, 마이크론 신고가 경신에 따른 반도체주 투자심리 개선, 밸류에이션 상 유효한 진입 메리트(코스피 선행 PER 8.7배) 등 상방 요인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

한편, 금일 오후 경 개최 예정인 자본시장 간담회도 주목할 만한 이벤트. 해당 간담회에서는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 4대 개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 이미 통과된 1~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자본시장 개혁과제는 뉴스플로우를 통해 나왔던 사안인 만큼, 얼마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지가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을 부여할 전망.

그 과정에서 간담회 이후 코스피의 단기적인 주가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예정. 여전히 코스닥은 연초 대비 코스피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상태이며(연초 이후 코스피 +33.8%, 코스닥 +22.9%). 최근 여러차례 장중 상승 폭을 반납하는 등 주가 회복력이 코스피에 비해 강하지 않은 환경임. 물론 반도체 등 주도주들의 실적,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 등이 코스피의 주가 회복력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실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상방 모멘텀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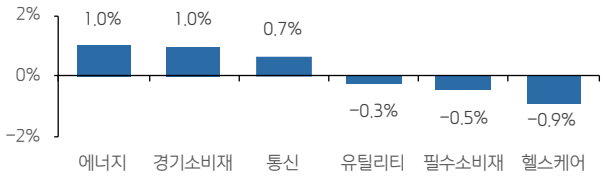
하지만 정책이라는 재료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의지가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시장 참여자들 역시 코스닥에서는 실적보다 정책 기대감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짙은 편임.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 부실기업 퇴출 및 상장폐지 절차 단축 관련 정책의 구체화 여부, 코스닥 펀드의 세제 혜택과 관련한 법안 가시화 여부 등이 코스닥의 단기 상승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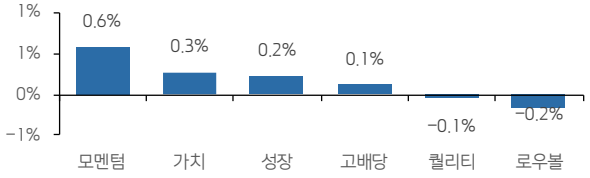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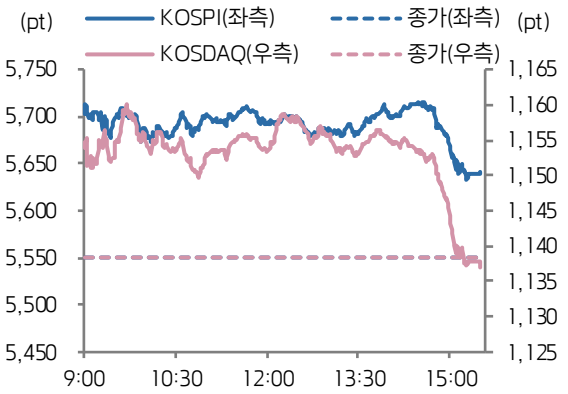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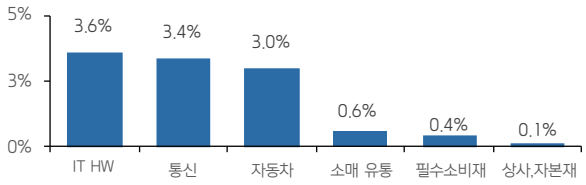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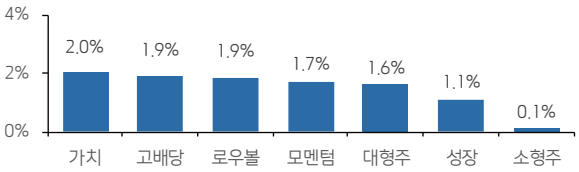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54.23	+0.56%	-6.48%	GM	74.04	+1.49%	-8.95%
마이크로소프트	399.41	-0.14%	-17.41%	일라이릴리	930.35	-5.94%	-13.43%
알파벳	310.92	+1.75%	-0.66%	월마트	125.08	-0.72%	+12.27%
메타	622.66	-0.76%	-5.67%	JP모건	286.89	+0.26%	-10.96%
아마존	215.20	+1.63%	-6.77%	엑손모빌	158.81	+1%	+31.97%
테슬라	399.27	+0.94%	-11.22%	셰브론	197.97	+0.57%	+29.89%
엔비디아	181.93	-0.7%	-2.45%	제너럴일릭트릭	125.08	-0.7%	+12.3%
브로드컴	321.31	-1.11%	-7.16%	캐터필러	702.00	+0.32%	+22.54%
AMD	196.31	-0.14%	-8.33%	보잉	210.82	-1.24%	-2.9%
마이크론	461.69	+4.5%	+61.76%	넥스트에라	92.53	-0.3%	+15.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640.48	+1.63%	+33.85%	USD/KRW	1,488.40	-0.23%	+3.4%
코스피200	840.89	+1.7%	+38.77%	달러 지수	99.57	-0.14%	+1.27%
코스닥	1,136.94	-0.12%	+22.85%	EUR/USD	1.15	+0.3%	-1.75%
코스닥150	1,974.53	-0.04%	+27.61%	USD/CNH	6.88	-0.09%	-1.33%
S&P500	6,716.09	+0.25%	-1.89%	USD/JPY	159.00	-0.04%	+1.46%
NASDAQ	22,479.53	+0.47%	-3.28%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6,993.26	+0.1%	-2.23%	국고채 3년	3.327	+2.1bp	+37.6bp
VIX	22.37	-4.85%	+49.63%	국고채 10년	3.700	+2bp	+31.5bp
러셀2000	2,519.99	+0.67%	+1.53%	미국 국채 2년	3.674	+0.2bp	+20.1bp
필라. 반도체	7,836.83	+0.52%	+10.64%	미국 국채 10년	4.199	-1.8bp	+3.2bp

다우 운송	18,051.70	+1.11%	+4%	미국 국채 30년	4.840	-2.6bp	-0.3bp
상해종합	4,049.91	-0.85%	+2.04%	독일 국채 10년	2.906	-4.6bp	+5.1bp
항셍 H	8,826.73	+0.12%	-0.98%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070.84	+0.75%	-10.74%	WTI	96.21	+2.9%	+68.5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103.42	+3.2%	+69.96%
Eurostoxx50	5,769.25	+0.53%	-0.38%	금	5,008.20	+0.12%	+14.5%
MSCI 전세계 지수	1,013.05	+0.49%	-0.15%	은	79.53	-0.91%	+12.64%
MSCI DM 지수	4,387.33	+0.41%	-0.97%	구리	572.65	-1.11%	+0.78%
MSCI EM 지수	1,495.43	+1.09%	+6.48%	BDI	2,038.00	+0.49%	+8.58%
MSCI 한국 ETF	134.43	+1%	+38.27%	옥수수	454.00	+0%	+1.28%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89.75	-1.26%	+13.74%
비트코인	74,540.10	+0.41%	-14.95%	대두	1,157.00	+0.15%	+9.05%
이더리움	2,328.62	-0.73%	-21.8%	커피	294.75	+0.65%	-11.5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당사는 3월 1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